

‘AI 열풍’ 中 수출길 넓혔다… 지난달 241억 달러, 119%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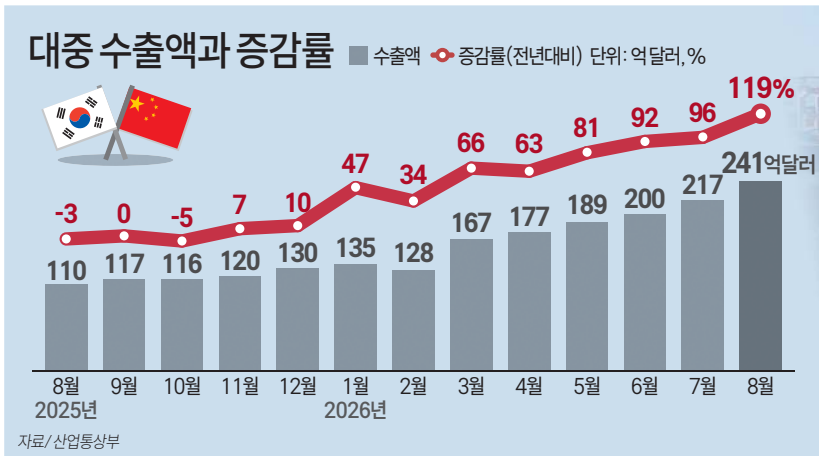
관세청, 이달 수출 증가율 103%
中 수출 3개월째 200억 달러 넘어
반도체 134억 달러 전년비 320% ↑
석유화학 5%, 디스플레이 14% 감소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119.3% 급증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이달 초에도 두 배 넘게 늘었다. 공식 통계를 종합하면 중국 내수 회복보다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연결된 반도체 공급망이 대중 수출을 끌어 올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0%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수출은 349억7300만달러로 82.6% 늘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아 증가율에 조업일수 효과도 없었다.

◆ 석유화학·디스플레이 수출 감소

지난달 수출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대중 수출 회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대중 수출은 24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19.3% 늘며 3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웃돌았다.

8월 1~25일 기준 대중 반도체 수출은 1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다. 일반기계 수출도 33% 늘었다. 반면 석유화학은 5%, 무선통신기기는 4%, 디스플레이는 14%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국기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8월 20%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 증가 폭은 반도체에서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에는 물량과 가격 효과가 함께 작용했다. DDR5 16기가비트

고정저래가격은 지난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128기가비트 낸드플래시는 같은 기간 24.2달러에서 30.5달러로 올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출액을 동시에 밀어 올린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의 ‘중국 반도체 수출 호조의 배경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99.3% 증가했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국 반도체 수출 증

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에 한국계 기업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 中 실물경제, 내수와 ‘온도 차’

중국 실물경제 지표도 수출·첨단 제조업과 내수 사이의 온도 차를 보여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6.7% 감소했고 부동산개발투자는 19.2% 급감했다. 민간투자도 9.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첨단기술 제조업 생산은 13.8%, 첨단산업

투자는 5.0% 증가했다. 수출 제조업과 첨단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소비와 부동산·민간투자는 부진한 이중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근원물가는 1.0% 올랐다. 하지만 식품 가격은 1.4%, 주거비는 0.3% 각각 하락했다. 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가계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대중 수출 급증이 성장과 무역수지를 떠받치는 요인이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중국 내수보다 글로벌 AI 투자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기대고 있는 만큼 변동성도 크다. AI 설비투자가 둔화하거나 메모리 가격이 조정되면 대중 수출 증가율도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 경우 한중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부담으로 전환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은행 마통 잔액 69.7조… 전년대비 6조 ↑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0.5% 증가
계좌당 평균대출 잔액 9% 급증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가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실제 대출 잔액은 6조원 넘게 늘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가 줄었는데도 잔액이 늘어, 기존 차주들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69조7283억원으로, 지난해 말(63조6409억원)보다 6조874억원(9.6%) 증가했다. 해당잔액은 은행이 설정한 대출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빌려 쓴 금액이 기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

는 486만9319개에서 489만3636개로 2만4317개(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계좌 수 증가폭보다 대출 잔액 증가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계좌당 평균 대출 잔액도 1307만원에서 1425만원으로 118만원(9.0%) 늘었다.

증가액은 주요 은행에 집중됐다. KB국민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조2277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신한은행 1조276억원, 하나은행 9974억원, 우리은행 8896억원, 카카오뱅크 8424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은행에서 늘어난 잔액만 약 4조9847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1.9%를 차지했다.

잔액 증가세는 특히 4월 이후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와 7월에 증가한 잔액은 총

5조7827억원으로, 연초 이후 전체 증가액의 95.0%에 달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2분기 들어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등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 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은행별 대출 잔액을 반영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94%에서 올해 7월 말 연 5.64%로 1.70%포인트 상승했다. 마이너스 통장 이용액이 늘어난 가운데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진 셈이다.

박 의원은 “계좌 수는 그대로인데 대출 잔액만 대폭 늘었다는 것은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에 역점”

이재근 KB금융그룹 회장 후보자
“계열사 인사,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이재근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자(사진)는 14일 “KB금융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국내 금융그룹의 1등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룹의 큰 성과 위에서 선임이 된 것은 1등으로서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고 있다”며 “경영의 연속성과 전략의 연속성, 비즈니스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고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으로 3~5년간 그룹의 명운이 달려있는 시



기”라며 “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대표 인사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금융그룹이 클수록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이가 국한하지 않고 역량에 기반해서 전문성과 직원들과의 호흡, 조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분양가 산정 기준 건축비 4.07% 오른다

국토부, 분상제 단지 분양가 오를듯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4.07% 오른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6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권을 비롯한 분상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인상해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주택의 지상층 기준으로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 때보다 ㎡당 9만1000원 오른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도 실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간접공사비 적용 요율이 조정됐다.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 요율은 6.0%에서 6.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10%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가는 이미 크게 오른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20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6355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기본형건축비까지 오르면서 분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신 기술과 공법을 적용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채리 기자 cr56@

신한 ‘뽕겨요’ 회원 1000만명 돌파 이벤트

리뷰 작성시 할인쿠폰 제공

신한은행은 배달앱 ‘뽕겨요’ 회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고객과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뽕겨요는 2022년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 수준의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 지역별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늘리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이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신한은행은 회원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뽕겨요 앱에서 가맹점의 ‘추천해요’ 버튼을 누르고 글 리뷰를 작성하면 1000원 할인쿠폰을, 포토·영상

리뷰를 등록하면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가맹점을 추천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1만원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지원도 병행한다. 고객 추천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00개 가맹점에 앱 내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해당 가맹점에는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규 입점 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뽕겨요를 통해 축적한 주문·매출 등 가맹점 영업 데이터를 금융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과 영업성적을 신용평가와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뽕겨요 우수 가맹점 대출’을 출시했다.

/나유리 기자